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어떻게 돼가나

# 공정률 75%... 이달말 상가 단지 조성 마무리

민선 4기 광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무등산 생태복원을 위한 '증심사집단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공정률이 70%를 넘어서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이주단지 조성에 이어 이달 말이면 주차장·상가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면 낡고 흉물스럽던 상가와 시설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자연생태계가 친환경적으로 복원된 무등산 공원을 거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가 시행 중인 '증심사집단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본다.

## 운림동 18만9천㎡ 712억 투입 작년 11월 이주단지 조성 완료 내년 상반기 친환경 관광명소로

◇사업 개요=광주의 진산(鎭山), 무등산의 관문인 증심사 계곡은 지난 1972년 공원 지정 이후 상가와 주택 등이 어지럽게 들어서 자연경관과 환경을 크게 오염·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 4기 들어 증심사지구 복원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2006년 2월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정비 방안은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복원 대상지는 동구 운림동 100번지 일대 18만9천㎡(5만7천평)으로 7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이주단지 조성을 마쳤으며, 현재 이주 대상 6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이주기로 했다.

학운초등학교 건너편에 주차장 448면(2만9천516㎡)과 버스회차지, 40동의 상가단지(2만7천277㎡)를 조성하는 2단계는 지난해 8월 착공, 이달 중 완료될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남은 3단계는 공원지역내 난립된 91동의 노후 상가와 주택을 철거, 8만9천935㎡의 부지에 탐방객 안내센터와 휴게공간을 건립하고 생태를 고유 자생수종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행은 택지조성 등에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시공은 진흥건설(주) 등 3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75%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복원되나=증심사 주차장~상가단지를 연

결하는 산책로를 신설하고, 증심교를 중심으로 계곡을 따라 2km에는 무등산에 자생하는 향토수종을 심어 자연수림대 군락을 조성, 사계절 꽃이 피는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만남의 광장에는 탐방객들에게 무등산을 소개하는 비저터(Visitor) 센터가 신축되며, 주변에 조성되는 산책로와 소규모 공원에는 목재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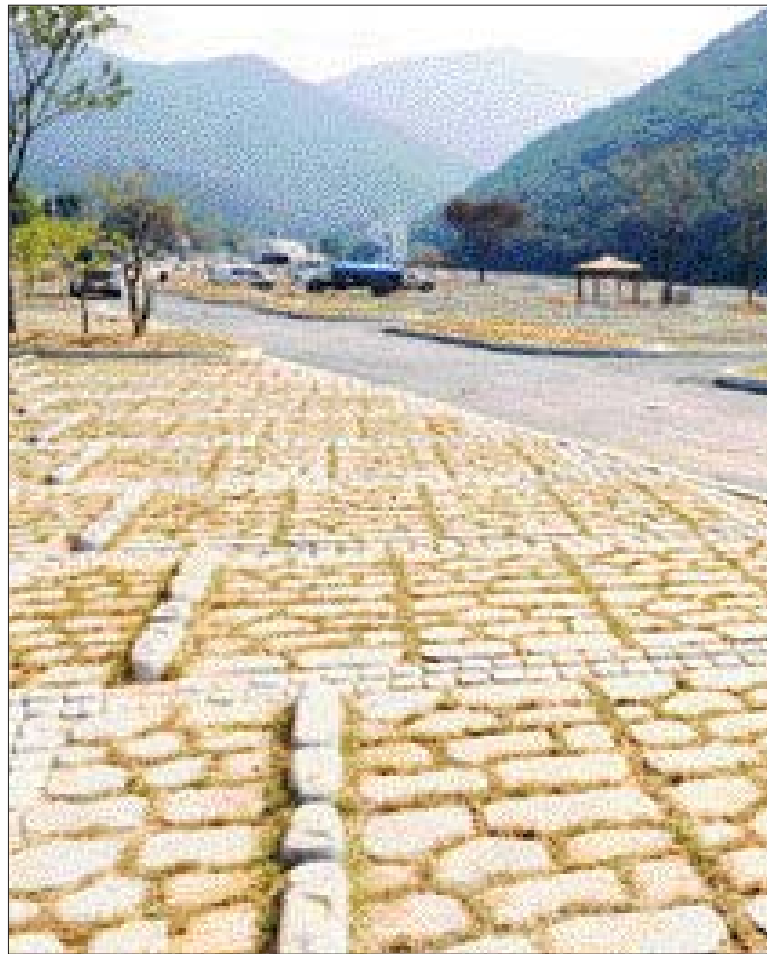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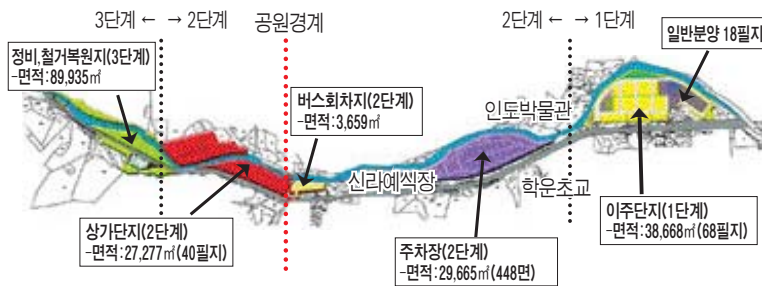
특히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면을 잔디생태블럭으로 시공해 마치 숲속에 주차하는 느낌이 들도록 조성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인목폐기물은 잘게 썰어 나무 주위에 뿌려 지력을 증진하는 '우드칩'으로 재활용, 비용절감과 친환경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관광명소로=증심사지구는 도심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연간 700여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남도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정비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한 채 30여년 이상 방치돼왔다.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광주천 오염의 주범이었다. 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복원 계획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의 구상대로 복원이 마무리되면 문화수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복원이 마무리되면 시와 주민이 함께하는 '보리밭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마련해 증심사지구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진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으뜸가는 생태복원지로 손꼽히는 무등산 중봉 일대에 못지 않는 친환경 생태복원으로 증심사지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휴식처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



잔디생태블럭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조성 중인 증심사지구 주차장. 전체 주차장 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확보, 마치 숲속에 주차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막 내린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결산

'제5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금남로와 총장로 일대에서 펼쳐진 여색간의 향연은 '추억' 신드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듯 관람객 동원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추억과 2030세대 간의 화합이라는 축제 본래 의미는 퇴색했고,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부분별로 나열돼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 관람객 동원 흥행은 성공 산업 연계 등 실속 아쉬워

◇'흥행'은 성공, '의미'는 퇴색=서아시아 페스티벌은 네살 등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무대로 채워졌다. 서아시아 페스티벌을 총괄한 바스무쿨(인도)씨는 "주최 측이 외국인이 오길 바라면서도 막상 서울 등지에서 유학생과 노동자, 공연팀이 와도 숙소조차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다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과 연계는 실패=공식 결워졌다. 매일 방송사들이 주관하는 전편월요일적인 음악프로그램이 열렸고,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땐 금남로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 때문에 '추억'과 2030세대의 통합을 이끌어 내란 행사는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11일에 열린 '청소년 가요제'와 폐막일에 열린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같은 의미 있는 행사는 관람객이 없는 시간대에 열려 관계자들의 잔치로 전락했다.

◇성급한 '아시아화'=올 총제는 아시아 최고 축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5개 지자체와 해외 공연팀을 초청해 아시아 대표 거리페스티벌을 초청한데다 '추억의 시간여행' 코너를 제외하곤, 주제 반응률이 30%에도 못 미쳤다"며 "7080이라는 문화상품을 지역개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추억의 거리조성' 등 상설체험 전시관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ahj@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구)남부빌딩  
1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1062) 227-9970

##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택지 및 상업지역 토지

【 토지중개 】

▶ 수원지구 택지 및 상업지역 최대 물량 확보

【 아파트 중개 】(신속처리)

▶ 우미, 모아, 현진, 코오동, 대주 등 분양권 물건 최대 확보

【 공장 】

▶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국도점  
대지(공장지) : 1030 건물 : 320평  
용지2억 실투자액 1억5000만원

【 수원지구 송원빌딩 임대 11월준공 】

▶ 1층 12평~40평 3.3㎡ 당 1500만원

▶ 부등산 판매시설 2층~5층 각 42평 용도:병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등(분할가능) 3.3㎡당 250만원 부터~

전문

정직한 중개문화 선도하는

월드공인중개사사무소

☎ 062) 952-0047, 954-0031

## 프랑스 원목가구 50% ▶

플러그 가구 FOLDER

식탁과 테이블을 하나로 접을수 있는 가구(30종류)

서재가구 LIBRARY

컴퓨터 책상, 탁자, 학생용 · 중역용 80종류

100% 친환경목 및 인, 인, 인까지 모두 한국산목 플러그, 서재, 주방, 침실가구 1500 아이템 독실물 발송하여 임박성, 어도 피를 유발하는 베니어, 램디에르 같은 화학나무를 단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총판 런칭 기념으로 50%파격세입!

10월 3일 신상품 전영

## 이태리 엔틱, 클래식가구 50% ▶

엔틱가구 ANTIQUE

클래식가구 CLASSIC

(주)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테리(구도동 옆)

062) 226-7565~7

100% MADE IN ITALY 홍스페이스는 로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전문점입니다. www.hongspace.kr

시골 방백 클래식가구 98%는 중국산입니다.

지하1.2층 : 365인 (40% 세입)가구 1.2층 : 오리자널 이태리가구 3.4층 : 친환경 원목가구 5층 : 소파 찰인대장